

CBS, 사내 방송기술 전시회 ‘2020 어서옵Show’ 개최



CBS가 지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에 걸쳐, 사내 방송기술 전시회 ‘2020 어서옵Show’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개최가 취소된 KOBA를 대신하여, CBS 기술국이 연구·개발한 제작시스템을 내부 임직원과 공유하는 목적으로 처음 시도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동안 기획과 준비를 통해 CBS 사옥 2층 G스튜디오에 간이 부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CBS만의 기술 개발 현황과 함께 경품 행사와 물렛 게임 등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전시 내용 중 ‘nCROS 서울 음원 공유 시스템’은 13개 지역본부에서 서울 음원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지역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음원을 구매/사용하던 것을 지능형 VPN 및 방화벽 등을 통해 구축했으며, 음원 사용료 등 제작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nCROS 공간이동’은 사내 인터넷 망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nCROS 시스템(오디오 파일 시스템)에 접속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2년 전 도입/구축한 지능형 사내 업무망을 확장하여, 망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방송제작의 편의성을 높였다.

‘미디어 허브 v1.5’는 CBS에서 생산되는 모든 영상, 오디오 콘텐츠를 모아 소셜 플랫폼(유튜브, 네이버TV 등)과 자체 플랫폼(CBS 만나APP) 등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원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직접 유통시키며, 제휴사가 접근하여 다운로드할 수도 있어 콘텐츠 관리와 활용에 있는 통합 솔루션이다.

‘C-BOX & C-CAST’는 새로운 모바일 영상 플랫폼으로, C-CAST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 서비스, 교회 전용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C-BOX는 셋톱박스를 통해 크리스천 전문 콘텐츠와 다양한 OTT 앱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미디어 허브 v1.5 전시존 설명 장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제26대·27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제26대·27대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7월 23일 라마다서울신도림호텔 14층 스카이가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국내 방송기술인을 대표하여 올바른 방송기술 정책의 수립과 방송기술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지난 2년을 기념하고, 향후 2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코로나 19로 축소된 규모로 열렸지만 폭우 속에서도 100여 명의 연합회원과贵宾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는 임병걸 KBS 부사장, 이창형 KBS 기술본부장, 김상훈 MBC 방송인프라본부장, 김상진 SBS CTO, 방규석 EBS 기술본부장, 김정석 CBS 기술국장,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이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장, 전영일 KBS 디지털시청100%재단 이사장,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련 단체장과 이후삼 24대 연합회장, 박종석 25대 연합회장이 참석했다.

행사의 시작으로 이상규 제26대 연합회장의 이임사가 시작되었다. 이상규 회장은 “지난 2년간 많은 일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삶을 더욱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연합회에서의 시간을 회상했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위기를 극복한 후에야 기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려운 미디어 시장을 27대 집행부와 연합회원이 굳건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란다.”라며 차기 집행부에 대한 응원과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임사를 마친 이상규 연합회장은 그동안 수고한 26대 집행부와 운영위원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감사패는 박재현 SBS 전 협회장, 이덕희 EBS 전 협회장, 신정근 CBS 전 협회장, 조상우 YTN 전 협회장이 받았으며, 대표로 신정근 전 협회장이 받았다. 공로패는 26대 연합회 집행부였던 김준성 연합회 부회장(KBS 전 협회장), 서상원 사무처장, 박민상 정책실장, 양갑찬 교육실장, 최권용 전 방송과기술 편집장에게 수여되었고, 대표로 김준성 회장이 받았다. 이어서 신임 변철호 27대 연합회장이 이임하는 이상규 연합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7대 연합회의 출범을 알리는 연합회기 인도식에서 이상규 연합회장은 변철호 연합회장에게 연합회기를 전달하고 축하해주었고, 변철호 연합회장은 참석한 연합회원의 축하 속에서 힘차게 연합회기를 흔들었다. 변철호 연합회장의 취임사가 이어졌고, 변철호 회장은 “극심하게 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지상과 콘텐츠도 생존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ATSC 3.0과 5G 융합 등 기술 구현을 통해 모바일에서 더욱 소비되어야 한다. 또한, 지상파를 막고 있는 비대칭 규제로 인해 지상파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고 직접수신율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라며 위기감을 드러냈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합회는 방송기술인 위상 강화와 교육 기회 확대 등 지상파의 생존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세 가지 중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바로 ‘올바른 방송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기술 교육과 세미나 강화, 주요 현안에 대한 연합회의 대응과 정부 기관에 대한 회원의 의견 제시’로 “연합회를 통해 방송기술인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겠다.”라며 포부와 목표를 전했다. 이어서 변철호 연합회장은 정행운 사무처장, 전성호 정책실장, 박계호 교육실장, 임성기 대외협력실장 4명의 신임 27대 집행부를 소개했다.

27대 연합회를 위한 축사로는 임병걸 KBS 부사장과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방송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언론인의 연대와 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규 연합회장에게는 감사의 말을, 변철호 신임 연합회장에게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행사는 어느덧 중반에 이르렀고, 건배 제의가 이어졌다. 건배 제의는 이창형 KBS 기술본부장이 단상으로 나와 연합회의 어려워진 작금의 현실을 토로하고, 함께 이겨낼 것을 다짐하며, 잔을 맞닿 것을 요청하였고,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6 7



8

1. 이임사 중인 이상규 연합회장 2. 이취임식에 참석한 내외빈들 3. 취임사 중인 변철호 신임 연합회장
4. 이상규 연합회장이 감사패를 신정근 전 협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5. 이상규 연합회장이 공로패를 김준성 연합회 전 부회장에게 전달하는 장면 6. 이상규 연합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변철호 신임 연합회장
7. 건배사 중인 이창형 KBS 기술본부장 8. 축사 중인 임병걸 KBS 부사장 9. 축사 중인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10. 힘차게 연합회기를 흔들며 27대 집행부의 시작을 알리는 변철호 신임 연합회장



9



10